

아태경제협력체 농생명공학 국제 공동연수회 열어

농진청, ‘지속 가능한 농업·식량안보 위한 생명공학 기술’ 주제로 개최

농촌진흥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산하 회의체인 ‘농업생명공학 고위정책회의’에 앞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개최한 국제 공동 연수회가 열리다고 밝혔다.

농업생명공학 고위정책회의(HLPDB, High-Level Policy Dialogue on Agricultural Biotechnology)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의 농업생명공학 기술 발전, 식량안보 인식 증진, 농업생명공학 관련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주최국으로 농촌진흥청 농업생명자원부장이 의장을 맡았다.

이번 국제 공동 연수회에는 국내외 전문가 13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대표단과 관련 전문가 100여 명이 참



농촌진흥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산하 회의체인 ‘농업생명공학 고위정책회의’에 앞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개최한 국제 공동 연수회가 열리다고 밝혔다.

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식량안보’를 위한 생명공학 기술을 주제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활용 농업생명공학 연구, 농업생명공학 기술 활용 신 육종 연구, 농업생명공학 산물

규제 및 조화 정책 3개 분과로 나뉘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자들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작물의 생산성 향상, 유전자기 기술과 디지털 육종 등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미래 비전 연구 동향을 공유했다.

또한 바이오 신기술을 적용한 농업생명공학 산물에 대한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정책 동향과 국제적 규제 조화,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표현체 연구동 등 농업생명공학 연구시설을 견학한 뒤 기후 위기, 식량안보 등에 대응하고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눴다.

권재현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생명공학은 기후변화, 인구 증가 등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혁신 기술이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충주시와 개발한 ‘중원진미’ 안착

농진청, 우수한 밥맛·벼멸구 등에 모두 강한 복합저항성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충주시가 공동 육성한 ‘중원진미’가 우수한 밥맛과 병해충 저항성을 인정받아 2026년부터 충주시 공공비축미로 선정됐다.

‘중원진미’는 국립식량과학원이 ‘전주601호(드래향)’와 ‘전주605호’(복합내병충계통)를 교배해 2024년 개발한 품종이다. 국내 최초로 벼멸구, 벼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에 모두 저항성을 가진 복합 내병충성 품종으로, 2024년 대규모 벼멸구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충주시 ‘중원진미’ 시험 재배지에서는 피해가 전혀 없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2022년부터 충주시와 함께 외래 벼 품종을 대체하고 지역 맞춤형 고품질 벼를 개발하기 위해 ‘수요자 참여 벼 품종 개발(SIP)’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중원진미’를 육성했다. ‘중원진미’ 가장 맛있는 쌀이라는 의미를 담은 품종 이름은 시민 공모로 선정했다.

SPP(Stakeholder Participatory Program)는 육종가, 농업인, 지역농협, 소비자 등이 참여해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현장 중심 연구이다. ‘중원’은 충주의 옛 지명

이자 ‘우리나라 중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충주시가 2022년부터 3년간 실시한 소비자 밥맛 평가에서 기존 인기 품종인 ‘추청’을 제치고 매년 1위를 차지하며 뛰어난 밥맛과 품질을 인정받았다. 같은 기간 지역적응시험에서도 높은 재배 안정성을 확인했다.

2022년 충주시 ‘추청’ 재배면적은 2,250ha(전체 벼 재배면적 4,325ha의 52%)이며, 8개 시험지에서 3년간 안정적인 수량성(평균 520kg)을, 병해충 저항성 특성 평가에서 벼멸구, 벼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에 저항성을 보였다. 2024년 지역 농업인 70명이 참석한 현장 평가회에서도 벼멸구와 도열병 저항성이 강하고 윤기 있고 찰진 밥맛으로 높은 만족을 얻었다. 중간간 품종으로 벼짚 활용도가 높아 축산 겸용농가에서도 긍정적이다.

‘중장간’은 벼 줄기길이가 ‘중간’보다 약간 큰 길이며, ‘중원진미’ 줄기길이는 70cm이다.

충주시는 ‘중원진미’를 2026년부터 공공비축미로 선정해 본격 보급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환경청, 도내 상수원 관리 실태 평가…약간 좋음 ‘양호’

환경부(장관 김성환)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관내 9개 지자체의 21개 취수원을 대상으로 4월부터 7월까지 상수원 관리실태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상수원 관리실태 평가는 ‘수도법’에 따라 매년 시행되며, 전년도에 각 지자체가 추진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 및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실적 등 2개 분야 15개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결과, 도내 상수원의 수질 등급은 매우좋음(Ⅰa) 14개소, 좋음(Ⅰb) 5개소, 약간좋음(Ⅱ) 2개소로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Ⅰa 등급은 간단한 정수처리(여과, 살균 등), Ⅰb등급 및 Ⅱ등급은 일반적인 정수처리(여과, 침전, 살균 등) 후 생활용수로 사용 가능

또한, 상수원을 관리하는 9개 지자체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급지행위 및 오염원 관리 단속을 위한 순찰과 “상수원 지킴이”를 통한 감시정화 활동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상수원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중단속 기간(4월~10월)동안 170건을 적발(낙시 및 어로행위 118건,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23건, 불법출입 23건)하여 현지 계도하였다.

다만, 정읍시 임실군 무주군 부안군 강수군에서 수질 점검을 위한 체수 지점 부적정 선정 미흡 등이 확인되어 관리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에 벤처투자 업계 관심 집중

정부의 AI·딥테크 유니콘 육성 의지에 벤처캐피탈 업계 적극 화답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한성숙)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5년 중기부 소관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접수 결과, 98개 펀드가 모태펀드에 약 135,000억원을 출자신청했다고 밝혔다.

모태펀드는 신청수요 중 3,100억원 내외를 선별 출자하여 민간자본과 더불어 약 6,000억원 규모 15개 내외 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펀드 수 기준 경쟁률 6.5대를 기록했다.

특히, ‘NEXT UNICORN Project’의 경우, 글로벌 AI·딥테크 패권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유망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집중하여 투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2차 추경예산을 통한 신설 사업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국내 벤처투자 업계가 AI·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기술성을 높게 평가하고, 시장 성장성에 주목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4년 국내 벤처투자 중 딥테크 10대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34% 증가하였으며, 특히 AI 분야는 전년 대비 75%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간 모태펀드는 (주)리얼리온, (주)리온오시스 등 최근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에 등극한 기업부터 (주)노아, (주)업스테이지, (주)트웰브랩스 등 ‘CB insights AI 100 2025’에 선정된 글로벌 AI 기업까지 유망 AI·딥테크 벤처·스타트업 대상으로 공급해왔다.

이번에 신설된 ‘NEXT UNICORN Project’ 스케일업 펀드는 유망 기업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을 100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 우수기업이 스케일업 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였다. 모태펀드는 ‘25년 2차 추경으로 시범 출범한 ‘NEXT UNICORN Project’를 ‘26년부터 확대하여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에 투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업스테이지, (주)트웰브랩스 등 ‘CB insights AI 100 2025’에 선정된 글로벌 AI 기업까지 유망 AI·딥테크 벤처·스타트업 대상으로 공급해왔다.

이번에 신설된 ‘NEXT UNICORN Project’ 스케일업 펀드는 유망 기업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을 100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 우수기업이 스케일업 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였다. 모태펀드는 ‘25년 2차 추경으로 시범 출범한 ‘NEXT UNICORN Project’를 ‘26년부터 확대하여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에 투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농진청, 여름배추 살리는 물 관리 기술 현장서 평가

농촌진흥청은 6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진부시험포(강원자치도 평창군)에서 여름배추 안정 생산을 위한 다목적 관수 시스템 현장 설명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여름배추 재배 현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고온 피해에 대응해 미세살수를 통한 온도제어 기술을 설명하고 보급을 확대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선보이는 다목적 관수 시스템은 미세살수 장치(스프링클러)를 활용한 살비로 자동관수 제어기, 양액 용기, 방제 용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물

주기(관수) 외에도 온도 관리, 양액 공급, 무인 방제 등 여러 목적으로 쓸 수 있다.

시스템에 부착된 자동관수 제어기는 기온이 30도(℃) 이상일 때 미세한 물 입자를 뿌려 기온을 1.8~4.8도(℃)까지 낮춘다. 기존 살수 장치는 입자가 굵어 증발열을 활용한 온도 조절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햇볕 데임을 유발할 수 있어 낮 동안 활용할 수 없었지만 이 시스템은 40도(℃) 넘는 고온에 물을 뿌도 배추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시간 제약 없이 쓸 수 있다.



또한 양액을 섞어 뿌리기에 좋다. 물을 째 때 생리화성제(글루탐산 등)와 질산칼슘을 0.01% 농도로 섞어서 뿌리면 배추의 광합성 능력이 향상되고 항산화 효소 활성이 증대돼 생육 개선은 물론 환경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중기부, 지역 벤처펀드 결성 활성화 제도개선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한성숙)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인 출자 한도를 상향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주로 개인 등이 상호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펀드다. 다만,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경우 투자 전문성과 운용역량을 고려하여 펀드 결성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결성금액의 30%까지 법인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획자가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결성금액의 40%까지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하여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이 전체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에 비해

약 2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는 40%까지 법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금번 제도개선으로 비수도권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규모가 확대되어 기업이 성장 초기 단계에서 겪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인수합병을 통해 벤처투자회사가 존속법인 이 되는 경우, 기존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운용해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벤처투자조합은 결성 총회 후 14일 이내 중기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나, 운용 중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이미 결성이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 해산 후 재결성 절차 없이 기존 조합원의 전원 동의만으로도 벤처투자조합 등록이 가능하도록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여 펀드 운용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